강연운 케이엘정보통신㈜ 대표이사

모두가 행복한 IT 세상 만든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인근에 위치한 케이엘정보통신㈜ 서울 본사에 들어서자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SI사업부가 별도의 층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2001년 대전에서 설립된 케이엘정보통신은 4년 전 서울로 본사를 이전했고, 지난해엔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재의 삼성동 사옥을 구입해 입주했다. 이처럼 회사의 규모가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강연운 대표이사의 신속한 판단력과 신뢰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

평소 스킨스쿠버와 골프, 마라톤 등 다양한 스포츠 레저 활동을 즐긴다는 강연운 대표. 첫 인상에서도 스포츠맨다운 다부진 체격과 시원시원한 성격이 인상적이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 전산학과를 졸업한 강 대표는 전공을 살려 쌍용정보통신, 썬마이크로시스템즈, 한국오라클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34세란 젊은 나이에 창업을 결심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객만족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34살의 젊은 패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때의 마음으로 고객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 초년병 시절부터 고객만족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는 점이 놀랍다. 처음부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버거웠을 때이기 때문이다.

위기를 경쟁력의 밑거름으로 만들다

창업 초창기에는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주로 유닉스 서버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등을 고객에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러한 기술영업 중심의 대리점의 경우 고객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경쟁력이었다. 고객 관계에 의한 마케팅이 중요했기에 고객과의 술자리도 자연스레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CRM(고객관계관리)을 통한 마케팅으로 2001년 창업 후 2004년까지 직원수도 늘어나고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4년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쳐왔다.

"회사의 관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이 닥쳤어요.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위기를 겪었죠. 하지만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이 때 큰 깨달음을 얻어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개발로 경쟁력 확보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과의 관계 중심적인 비즈니스만으로는 힘들다는 점이었다. 또 조직이 커지면서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 때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관리이사를 채용해 법률적인 부분부터 경영관리까지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또 기술개발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도 강 대표가 깊이 깨달은 점 중 하나다.

한 마디로 예방주사를 세게 맞은 강 대표는 기술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R&D 개발본부를 만들고 투자를 지속해온 결과, 현재 엔포유 CMS AP, Klogin SSO, 시설물이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 등에서 다수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케이엘정보통신은 R&D, 인프라, SI, 경영지원본부 등 총 4개의 사업본부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의 지방사무소를 갖추고 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2004년 이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전자정부 실현이었다. 당시 이 사업을 주도하던 핸디소프트 그룹웨어의 대리점권을 따게 됐는데, 주로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었다. 케이엘정보통신이 기술개발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며 회사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켜왔기에 가능했다.

"대리점권을 딴 이후 그룹웨어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경험은 추후 우리 회사가 S/W 개발사업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의 각종 IT 관련 사업에 탁월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케이엘정보통신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의 6000여 개 초·중·고교의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 각종 연구소, 금융기관, 종합병원, 대기업의 IT 환경도 구축해나가고 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의 환경 제공

케이엘정보통신이 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획일적이고 한정된 디자인과 기능을 제공하던 기존의 홈페이지 제작을 지양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기능과 디자인 제공이 가능한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즉 기존 홈페이지는 당연히 한정된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틀이 있었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기획자·디자이너가 만든 UI를 그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혁신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자동으로 화면해상도에 맞게 최적의 사용자 환경(UI:User Interface)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반응형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케이엘정보통신이 전국 초·중·고교의 절반에 가까운 6000여 개의 학교통합홈페이지를 마치 개별적으로 컨설팅해 구축한 홈페이지처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됐다.

"IT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다양한 고민과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통합적으로 접근해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고객이 각 분야의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한정된 의견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위한 통합적인 최상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 INTERVIEW

설립년도
2001년

직원수
171명

매출액(2018년 기준)
404억 3000만 원

주요제품
엔포유CMS AP, Klogin SSO, 시설물이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

일례로 최근 수주한 B교육청 학교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은 홈페이지 개발, 인프라 구축, SI통합사업의 형태인데, 경쟁 제안 업체들은 컨소시엄(주사업자, 부사업자)의 형태로 제안했지만, 케이엘정보통신은 단일 업체로서 제안해 가격, 고객과의 소통, 장애 시 책임 등의 장점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케이엘정보통신은 홈페이지 사업뿐 아니라 ERP 및 통합정보시스템과 같은 업무관리시스템도 주력 사업이다. 최근 총 사업비 60억 원 수준의 대형 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스토리지 전문 공급 제조사인 넷앱코리아의 최고 레벨 파트너 등급인 스타 파트너로서 삼성전자 등 국내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넷앱 스토리지 전문 파트너다.

자율성과 책임 강조한 채용 방식

IT 업계는 이직률이 높은 업종 중 하나다.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의 경우 이직을 통해

"IT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다양한 고민과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통합적으로 접근해 고객이 최상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연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엘정보통신의 이직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창업 이후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동고동락해 온 직원들이 많다. 업무의 특성상 주말에 이뤄지는 회사의 각종 워크샵이나 체육대회 등도 참석률이 95% 수준에 달한다.

"현재 우리 회사의 부서장 이상급 인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 회사가 첫 직장인 직원들이에요. 우리 회사를 첫 직장으로 선택하고 부서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동안 꾸준히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회사와 직원 상호 간의 신뢰와 열정이 그 어느 회사보다도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기본으로 한 케이엘정보통신의 기업문화는 자율성과 가족적인 분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강 대표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자율성'을 통해 책임감을 부여해준다. 일례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경영진이 아닌 그 직원의 상급자가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함께 일을 할 사람이 최고의 적임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입사한 이후 상급자에게 관리의 책임도 있어요."

강 대표는 부서장 정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맡기는 편이다. 회사의 경영자라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 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줘야 책임감이 생기고 애사심도 생

길 수 있다는 게 강 대표의 생각이다.

이러한 직원들이 대표이사와 같은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케이엘정보통신의 최대의 강점이자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다.

IT시장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터

강 대표는 올해 매출액 550억 원, 직원 수도 2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MINI INTERVIEW

열정과 의리, 신뢰를 중시하는 젊은 리더

케이엘정보통신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케이엘정보통신은 2001년 대전에서 시작해 2015년 서울로 본사를 옮기고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사무소에서 170여 명의 임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회사입니다. 케이엘정보통신은 대한민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 약 6000여 개 초·중·고교의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대부분 초·중·고교의 홈페이지는 특화된 능력을 지닌 케이엘정보통신이 관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 각종 연구소, 금융기관, 종합병원, 대기업의 IT환경도 케이엘정보통신이 구축하는 등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 유망한 기업입니다.

강연운 대표이사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곁에서 지켜본 강연운 대표이사는 우선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열정과 의리, 신뢰를 중요시하는 건강한 리더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건강한 정신과 판단력으로 생존 가능한 탁월한 체력과 신속한 판단력을 지닌 젊은 리더입니다. 강 대표님은 또한 자기관리가 철저한 리더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힘은 철저한 건강관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골프, 스킨스쿠버, 마라톤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체험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멋진 리더입니다. 그런 부분을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케이엘정보통신과 KB국민은행의 동반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까.

현 케이엘정보통신 삼성동 사옥은 KB국민은행(하안동지점 박병권 지점장)이 마련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전문가 상담으로 삼성동 사옥을 구입해 입주하기까지 KB국민은행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 지원했습니다.

케이엘정보통신은 향후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어서 KB금융그룹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케이엘정보통신과 KB국민은행은 동반성장을 토대로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IT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실현하며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기존 사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현직 법관, 관련업계 CEO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법학회라는 단체에서 시스템 구축을 맡아 블록체인을 접목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케이엘정보통신은 한 차원 더 성장하고, 직원들에게도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IPO를 준비하고 있다.

"고객이 갖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요구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이 창업의 이유이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물론 지금도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어느 정도 이루어낸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케이엘정보통신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 상장을 위한 IPO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IT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시장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글 **박지연** · 사진 **김성호**

사이버 보안을 IT로만 생각하는 것은
CEO부터 회사 전체의 노동력이
단순히 하나의 HR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스티븐 채빈스키 | 미국 사이버보안 전문가